

히틀러의 ‘존재냐, 죽음이냐’(Alles
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이성의 파괴”

'Alles oder Nichts' Grammar of
Adolf Hitler and its Political
Rule-System : "The Negation of
Reason"

< 대표저술 >

「'노동'과 '잉여가치' 생산의 관점에서 본 Karl Marx의 '권력'개념」
(2001)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자본”:'노동'의 해체를 통한 “자본” 독해」
(2001)

「조봉암의 국가건설사상:민주사회주의 국가이념」(2006) 「박헌영의
국가건설사상: 사회주의 국가건설」(2006)

관심분야 : Karl Marx의 정치사상과 사회철학

E-mail : hynjoe@hanmir.com

• 조현수 (Joe, Hyeon-soo)

• 학위취득대학 : 독일 Marburg 대학 정치학 박사

• 현직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히틀러의 ‘존재냐, 죽음이냐’(Alles 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이성의 파괴”*

<국문요약>

언어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은 히틀러의 정치권력 및 지배체제가 언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장악되고, 유지되며 확대재생산 되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히틀러체제는 히틀러 개인에 대한 숭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어를 대중선동과 대중조종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히틀러의 언어, 어법 및 언술행위들은 명백하게 정치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에 있어 언어는 정치적 행위 및 정치담론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히틀러체제는 상징성의 언어 혹은 언어의 정치화를 통해 ‘적’과 ‘동지’라는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정한 사상을 주입 및 강요하고 자신들의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였다. 히틀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거의 인간 이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부정은 생활공간의 확보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주 제 어]

탈영웅적 사회, 새로운 전쟁, 비대칭성의 상호성, 테러리즘, 평화

I. 서론

언어는 사회맥락적 의미에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형성하고 조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행한다. 즉 언어는 청자와 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일정한 맥락 속에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며, 동시에 청자는 화자의 단어 및 문장들을 자신의 인지구조 속에서 재해석하여 담론화한다. 이 경우에 언어가 정치권력과 결합하게 될 때, 언어의 정치적 행위 혹은 언어의 정치담론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은 특히 ‘일체’나 ‘합치성’의 문법을 강조하는 히틀러체제에게 거의 예외 없이 잘 적용되고 있다.¹⁾ 히틀러체제 혹은 나치체제는 히틀러 개인의 대한 숭배,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어를 대중선동 및 대중조종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덧붙이자면 히틀러체제에서 언어는 대중의 감정적 표상세계를 자극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통치책략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히틀러체제는 상징성의 언어 혹은 언어의 정치화를 통해 ‘적’과 ‘동지’라는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정한 사상을 주입 및 강요하고 나아가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도모하였다.

히틀러 개인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피와 약탈에 굶주린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괴수”, 이 언어적 용법은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한지 4일째 되는 날 라디오 방송에서 처칠이 히틀러를 두고 한 표현이었다. 1934년 11월 무솔리니는 시온주의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3-BS0010).

1)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주의 정권에서 언어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주의 정권 역시 ‘자유’, ‘평등’ 혹은 ‘정의’ 등의 언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언어의 정치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인 골드만(N. Goldmann)에게 히틀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²⁾ “나는 히틀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멍청이일 뿐만 아니라 불량배이며, 그것도 미친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공론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민족의 메시아”, “총통”, “독일민족의 지도자”인 히틀러가 자살 직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칼 뢰니츠 Karl Dönitz는 이렇게 말한다. “총통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나의 손자들이 쓰레기 같은 유태인 정신을 교육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서를 해치게 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독일에 국가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정당들과 유태인들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비판하고 해를 끼치고 분열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총통의 덕분으로 이 모든 나쁜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즉 “국가사회주의가 독일 민족에게 이 모든 것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국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임무를 완수함에 있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사생활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주의가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즉 우리 민족공동체의 단결을 지키는 초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 제국친위대장으로 임명된 히틀러(Himmler) 역시 친위대의 도덕관과 관련된 연설에서 히틀러를 영웅중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독일 민족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분이 나타났다. 그는 게르만 민족이

2) 반면에 1937년 9월 말 무솔리니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역사에 의해 길들여진”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들어내는 시대의 고독한 인물” 중의 한 명으로 평가했다. 유니폴 작용, 칼라셔츠, 인사법 등은 히틀러가 무솔리니에게서 배운 것이며, 준군사적 방식, 전투단원, 지도자원칙, 군국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투쟁적 반볼셰비즘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강령으로 창안한 것이며, 국가사회주의체제는 이것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채택했다. 또한 웅장한 제식을 통해 권력을 연출하고 대중정치에 토대를 둔 카이사르주의의 창시자는 무솔리니였다. 이 역시도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체제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중의 한 분이다. 괴테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비스마르크는 정치 분야에서, 총통은 정치,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다.” 요컨대 “총통은 언제나 옳다.”³⁾ 이렇듯 히틀러체제 혹은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문법에 있어 개인의 자유, 평등 등의 언표가 들어설 공간은 사라지고, 오로지 민족공동체 혹은 국가 그리고 이를 구현할 히틀러를 위한 언어적 연출 및 문법만이 독점적 위상을 점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나치체제의 연출기법은 목적지향적인 정치적 조치, 혹은 정책을 통해 지탱되었으며, 이는 이른바 카리스마 정치와 지도자국가(Führerstaat)의 확립으로 나타난다(Herbst, 2000: 171-191). 이에 덧붙여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나치체제의 파시스트들의 성격구조는 경건함, 추상적이며 윤리적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극기, 지도자의 신적 사명에 대한 절대적 믿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사회주의체제 속에서의 대중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언표의 동기로 작용한다. 대중은 지도자와의 동일시 속에서 자신을 ‘작은 히틀러’로 간주함으로써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인한다.⁴⁾ 이러한 규정성 속에서 히틀러라는 인물과 대량 선전문구 속에 담겨 있는 연극조의 탁월한 기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지지른 유대인종에 대한 인종학살, 즉 “특별대우”(Sonderbehandlung) 내지 “유대인문제의 최종해결”(Endlösung der Judenfrage)은 “금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살

3) 히틀러체제의 권력핵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물들에 관해서는 Guido Knopp, *Hitlers Helfer*(München: Bertelsmann, 1996). 신철식 옮김. 『히틀러의 뜻대로. 히틀러의 조력자들』(서울: 울력, 2003), 참조.

4) Reich, Wilhelm.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Infant Trust Fund, 1997), 황선길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서울: 그린비, 2006), 130-131.

인 중에 가장 극적이고 잔인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히틀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및 문법이 나치체제의 지배담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배담론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서 그의 언어 및 문법을 분석하려 한다. 덧붙이자면, 본 연구에서는 『나의 투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언술을 중심으로 히틀러 혹은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지배체제의 특징을 언어와 정치의 상호작용관계 -언어의 정치화 - 속에서 논의하려 한다. 다시 말해, 히틀러가 사용한 언어와 문법 속에 담겨 있는 정치이데올로기 내지 정치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나치체제의 정당화 및 이 체제의 확대재생산 방식을 고찰하려 한다.

II.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감성적 함의와 히틀러의 등장: 대중의 감성과 “민족” 문법

이 장에서는 신비주의와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계몽의 변증법”을 부정하고 살생의 정치를 추구하려 했던 히틀러의 언어적 문법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 및 사회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탐색하려 한다.⁵⁾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독일적 상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감정과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에 대한 하나의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감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언표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곧 히틀러, 나치즘의 등장을 합리화시켜 주었다.

5) 히틀러에 관한 유명한 저서로는 Joahim Fest, Hitler: Eine Biographie(Berlin: Ullstein, 1998); Ian Kershaw. Hitler: 1889-1936(London: The Penguin Press, 1998). Deutsche Ausgabe(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98); Alan Bullock. Hitler und Stalin: Parallele Leben(Berlin: Siedler, 1991) 등을 참조. 요하임 페스트의 책은 번역되었다. 안인희 옮김. 『히틀러 평전』(서울: 푸른 숲, 2001). 이하에서 인용표기는 저자를 적되, 쪽수는 번역본에 따르기로 한다. 번역본이 있을 경우, 다른 문헌의 인용도 이 원칙에 의거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언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점을 논의하기 위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하기 전의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히틀러의 등장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배경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배경들이 하나의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히틀러의 역사적 등장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 배경들로는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굴욕적인 베르사유조약, 인플레이션, 중산층의 추락 및 공포, 세계경제의 위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나치이데올로기의 역동성은 증폭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특징에 더하여 시대적 변화가 다가온다는 정서들이 국가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Fest, 1998).⁷⁾

6) 여기서 이 검토는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하기 전의 독일의 상황에 관해 한정될 뿐 이른바 독일 파시즘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글의 연구주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 관점에서 파시즘을 자본주의 지배의 특수형태 내지는 특정방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한 파쇼운동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파시즘을 자본주의에 고유한 위기해결방식, 즉 경제위기의 해결방식으로 간주하려는 관점도 존재한다. 경제위기의 해결방식의 관점에서 파시즘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 논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대공황으로 인해 망가진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 및 조정의 필요성, 군수육성과 내부 저항세력의 제거, 노동자계급을 억압함으로써 이들로 부터 상당한 정도의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자본주의를 공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필요성 등이다.

7) 1933년 4월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된 이후에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NSDAP)의 당원이 된 하이테거는 1933년 11월 “독일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국가사회주의 혁명은 우리 독일의 실존에 총체적인 변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정신을 구현하는 미래의 대학을 창조하기 위해 깨닫고 함께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심과 추종의지를 낱알이, 시시각각 강화하십시오. (...) 우리 민족의 본질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의 가장 내밀한 힘을 국가 내에서 고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희생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 만세!”. Jeff Collins, Heidegger and the Nazis, London: Icon Books, 2000). 이경현 옮김, 2004.

제3 제국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위기의 일상'은 산업적 계급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이상의 것이었다. 이 위기는 제2 제국의 몰락과 함께 일어난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전복이 맞물린 위기였다. 또한 독일의 정치체제는 1930년대 초에 또 다시 붕괴하게 된다. 이 정치위기는 단지 의회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산업적 계급사회 전체의 포괄적 위기였다. 이에 관해 간단히 논의해 보자(Peukert, 1982: 40-63).

제2 제국에서 행한 정치체제의 통치는 중간계급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접근방법을,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치적 배제와 점진적인 최소한의 경제적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들어와서는 초기에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구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특권적인 역할을 상실한 중산계급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강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호경기가 끝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탱해 주었던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타협 내지 합의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8년 루르(Ruhr) 철강 분규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장폐쇄를 당한 노동자계급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을 때, 중공업 산업자본가들은 노동조합국가에 대한 공포를 되새기면서 격노하였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은 이들 자본가들과 타협을 하려고 하였지만 자본가들은 이들 존재 자체가 위기를 이용하여 복지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전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예단하였다. 복지국가의 축소 및 해체는 라인-베스트팔렌(Rhein-Westfalen) 지역의 중공업 자본가들이 대공황 발생 이전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절대적인 정치적인 사안이

『하이테거와 나치』. 서울: 이제이북스, 39에서 재인용. 하이테거의 이 연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예감하고 나온 것은 아닐까? 비록 하이테거가 1934년 4월 총장직을 사임하고 나서 나치체제에 대한 찬사의 연설을 행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었다. 물론 이러한 요구사항이 자동적으로 나치체제와 같은 폭력적 독재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슈테그만(D. Stegmann)(1973)의 주장처럼 나치체제, 혹은 국가사회주의 당에 동조하였던 자본가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들 자본가들(특히 중공업에서의) 대부분은 위기의 탈출구로서 권위주의적-신분국가의 수립, 군주정의 복고, 대통령 독재 등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보기에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독일국가를 구원할 방법은 무엇인가? 독일국민이 지니고 있는 무력감,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초조함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공포감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히틀러는 이렇게 진술한다. 대중은 “단순한 사고체계와 단순한 감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중이 “정리할 수 없는 것은 대중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대중집회에서 “사고는 차단된다”. 히틀러의 진단에 따르면, 총체적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매개체는 대중의 감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의 통일, 통합체를 지시하는 ‘민족’(Volk)이었다. 히틀러에 있어 ‘민족’이라는 문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이라는 문법은 히틀러가 자신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즐겨 사용하였다. ‘민족’은 계급과는 대조적으로 인종적으로 통일된 단위로서 순수성 자체를 의미하며, “피와 대지” 사상에 입각한 역사적으로 운명지위된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민족’이라는 문법은 오로지 ‘독일민족’만을 지칭하는 배타적 개념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민족과 공산주의는 “독소와 세균”으로 비유되었던 것이다. ‘민족’을 기본세포로 성립하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각각의 사회계층들이 ‘피와 대지’로 하나가 되는 운명공동체로 결집되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히틀러의 연설문에서 “민족의 식”, “민족문화”, “민족복지”, “민족의 땅”, “민족보호”, “민족의 고

향”, “민족신체”, “민족영혼”, “동포”, “민족적 삶의 신장”, “민족적 발전”, “민족적 생활질서”, “민족경제” 등은 히틀러 개인과 나치체제의 정치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언어들이다. 하지만 이 용법은 언어의 정치화를 통해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나아가 “하늘의 섭리에 의해 독일 전체의 운명의 주인”인 히틀러의 리더십과 “지도자원칙”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⁸⁾ 동시에 히틀러에 있어 ‘민족’이라는 문법은 ‘적과 동지’라는 정치구도의 핵심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III. ‘존재냐, 죽음이냐’(Alles oder Nichts)의 화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1. 적과 동지: 절대성의 정치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언어의 감정적 표출을 지시하는 연설이 대중에게 미치는 파괴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감정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수많은 연설을 행하였다. 연설은 히틀러의 지배담론을 형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게 있어 연설은 곧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열쇠였다. 연설, 즉 언어가 가지는 마력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8)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보이는 험란한 어법과 몸짓의 언어만큼이나 그의 정치적 숙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제국수상에 임명되자 거의 곧 바로 독일공산당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선거(3월 5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3월에 수권법(enabling act)을 제정하여 상임비상통치권을 확립하고, 4월에는 유대인의 관공서 출입금지, 5월에는 독일노동조합연맹해체, 7월에는 정당들의 활동 금지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즉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결코 타조의 깃으로 만든 펜에 의해 인도된 것이 아니란 점을! 그렇다. 펜은 언제나 혁명을 이론적으로 기초하는 일만 할 뿐이다. 그러나 종교적, 정치적 방법으로써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힘은 옛날부터 이야기되는 영원한 ‘말의 마력’ 뿐이었다. 대다수의 대중은 특히 언제나 연설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다. 그리고 위대한 운동은 모두 다 대중적인 운동이며, 인간의 정열과 정신적 감수성의 화산 폭발이며, 잔인한 곤궁의 여신에 의해 선동되거나 대중에게 던져진 횃불에 의해 선동된다...(MK, 165-166).

하지만 통치철학의 관점에서 히틀러의 이념을 검토해 볼 때, 사실상 히틀러는 그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의 투쟁』에서 진술되고 있는 그의 관념들은 통틀어 사회적 다원주의의 사상으로 소급될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그의 세계관은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논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요컨대, 자연의 기본원칙은 존재에 대한 투쟁이며, 이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까닭에, 인류사의 기본범주들은 가족, 민족 그리고 인종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생활공간”을 위한 민족들의 생존투쟁이며, 각각의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 특정한 “생활공간”을 필요로 한다. 전쟁은 한 민족의 보존을 위해 지극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행위이며, 정치는 한 민족의 생존투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자연 속에서 ‘생활의 더 높은 배양’을 위한 수단으로서 더 강한 자의 승리라는 귀족주의적 기본이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진보의 전제인 것이다. ‘저질의’ 생명은 사라져야 하며, 아리안 족만이 ‘창조적’이며, ‘가장 높은’ 생명체인 까닭에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더 열등한’ 인종은 ‘헌신’하기 위해 태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Auerbach, 1986: 136-137). 히틀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전쟁과 연결되며, 게다가 전쟁의 정당성 혹은 폭력의 정당성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전쟁은 자연적이고 정상적 과정일 뿐이다. 이는 곧 이성이

지시하는 언어이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느낄 하등의 필요는 없다. 전쟁은 민족의 자존을 위한 성스러운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무엇보다도 “적과 동지”라는 구도 속에서 ‘열등한 인종’에 대한 ‘강한 자’의 지배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 운동에서 중간노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생존을 위한 상대방의 부정, 즉 파괴의 정치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는 이 점을 『나의 투쟁』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어떤 운동의 미래는 지지자가 오로지 그 운동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유사한 성질의 다른 조직에 대해 최후까지 밀어 붙이는 열광 내지는 불관용에 달려 있다... 운동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당장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불관용에서 생기는 오랜 투쟁의 지속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 승리가 추구되어야 유익하다... 어떤 이념을 이 세계에서 구현하고 있는 모든 강력한 조직의 위대성은 그 조직이 열광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의지를 비타협적으로 관철하는 종교적 열광과 불관용 속에 존재한다(MK, 498-499).

히틀러에 있어 ‘적과 동지’의 드라마는 민족주의 세계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민족주의 세계관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적과 동지’의 정치공간 역시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히틀러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주의 세계관이란 도대체 어떠한 담론을 담지하고 있는가? 그의 민족주의 세계관은 ‘반유태인주의’와 ‘반국제주의’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나의 투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민족주의 세계

9) 나치체제에서 어휘사용에 있어 ‘유태인의’(judisch)와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어휘는 거의 동의어로 되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유태인’, ‘국제주의’, ‘맑스주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어휘로서 히틀러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의 ‘적’(Feind) 개념이다.

관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민족주의 세계관은 인류의 의의를 **인종적 근원요소**(강조: 필자)에 둔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국가의 목적을 인종으로서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 세계관은 **결코 인종의 평등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인종의 가치에 우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에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의지에 따라 우자(優者)나 강자의 승리를 추진하고 열자나 약한 자의 종속을 요구함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족주의 세계관은 **자연의 귀족주의적 근본사상**에 기여하며, 이 법칙이 모든 개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믿는다. 그것은 단지 인종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차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가치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균등으로부터 인격의 중요성을 추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 세계관은 해체적인 맑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 어떤 윤리적 이념이 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 민족주의 세계관은 그 이념에 생존권을 용인할 수 없다...**

유럽 대륙에서 인간문화와 문명은 아리아 인종의 현존과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다. 아리아 인종이 멸망하거나 몰락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 문화가 없는 암흑의 베일에 싸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민족주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인류문화의 담당자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존립을 손상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아야 마땅할 죄이다...

... 민족주의 세계관은 자연의 내적 의지에 순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뛰어난 상대방을 육성할 것이 분명한 힘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흥시켜, 마침내 가장 우수한 인류가 이 지상을 획득함으로써 지구 안팎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약할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인종만이 지배민족으로서 온 지상의 모든 수단과 가능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이겨낼 준비를 갖추게 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MK, 29-30).

이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세계관은 “자연의 내적 의지”에 순응하는 것으로 인종¹⁰⁾과 각 개인들의 인격에 토대를 둔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에 있어 인종은 반유대인주의, 반국제주의, 그리고 반맑스주의 행동강령과 연결되는 것으로 ‘적’이라는 표상을 만들어 내며, 동시에 나치체제의 이론적 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음모”의 주역으로 히틀러 혹은 나치체제는 전통적인 적, 즉 유대인, 볼셰비키, 자본가 등을 상징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는 반유대주의, 반볼셰비즘 그리고 반자본주의가 상호교환이 가능하며, 지지자들의 상상력 속에서 이것들은 결코 모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Peukert, 1982: 54-5). 이 ‘적’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대립물로서 만약 이 적과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즉 “혈통과 인종에 반하는 죄는 이 세상의 원죄”이며, 이 죄는 “인간성의 종말”로 귀결된다. 동시에 히틀러가 제시하고 있는 인종론은 다윈이 주장한 적자생존 혹은 자연도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을 대전제로 한다(Reich, 1997:123). 또한 개개인의 가치 내지 인격에 대한 강조는 엘리트집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나아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및 헌신이라는 담론과 연결된다. 달리 표현하면, “인종의 역사는 자연의 역사”이며, “혈통, 종교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 민족의 영웅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발명가와 예술가들에 대한 세계사”이다. 히틀러의 문법에서 볼 때 인종혼합은 민족과 민족공동체의 타락이며, 이 타락은 “인류의 영원한 박테리아”(ewiger Spaltpilz der Menschheit), 혹은 “기생충”인 유대인과의 혼합, 혹은 교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사회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반유대인주의의 주 원천 중의 하나는 매독에 대한 비합

10) 히틀러는 인류는 세 가지 인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문명을 창조하는 인종, 문명을 전달하는 인종 그리고 문명을 파괴하는 인종이 바로 그것이다. 아리아 인종은 문명을 창조하는 인종인 반면에 유대인은 문명을 파괴하는 인종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인과 같은 민족은 문명을 전달하는 인종이다.

리적 두려움으로 히틀러가 주장하는 영혼과 영혼의 순수성에 대한 환상은 다른 아닌 ‘성적 순수성’에 대한 세계관을 지칭한다(Reich, 1997:132-135). 매독이라는 ‘세계적 전염병’에 대해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매독에 의한 대규모 오염이 초래하는 가장 뚜렷한 결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만연된 정신생활의 슬픈 산물이다. 부모의 타락행위는 아이들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혈통의 투쟁, 민족의 흥망, 혈통의 타락, 유대인의 세계적 전염병 등과 같은 언표들은 언어의 정치화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 맑스의 ‘유대인의 유물론’, 즉 “질병”인 맑스주의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Reich, 1997:134). 히틀러는 지금까지 다른 정치세력들의 맑스주의에 대한 대응을 “돌팔이 의사의 치료행위”로 폄하하고, 국가사회주의 운동이야말로 맑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항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있어 혈통의 보존, 인종의 순수성을 위한 투쟁은 이미 합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고귀한 신의 언명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도자와 엘리트 집단은 인종 혹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을 지도하며, 나아가 민족공동체라는 이상을 구현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목적이란 곧 “인종의 보존”에 있는 까닭에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은 “영원한 창조자의 의지”, 즉 자연의 의지를 받들어 “혈통과 인종을 순수하게 지키는” 숭고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도체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사회주의 지배체계의 강령은 “아돌프 히틀러”¹¹⁾이며, 그와 “진정한 국가사회주의자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신념만이 존재”하는 데 그것은 곧 “민족과 국가

11) 히틀러의 추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 “우리의 강령은 두 단어들로 작성된다. 즉 ‘아돌프 히틀러’”. (Unser Programm lautet mit zwei Worten: 'Adolf Hitler'.)

이다”(MK, 306). 또한 그의 세계관 혹은 세계사는 “집쟁이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MK, 152). 인간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의 유지나 정부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보존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¹²⁾ 이 모든 것은 ‘운명’이 “독일민족의 메시아”인 히틀러에게 암시해주었던 선물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의 궁극적 지향점은 정해졌다. 즉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목표는 우리 인종, 우리 민족의 존립과 증식의 확보, 민족의 아들들의 부양, 피의 순결 유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며, 우리 민족이 만물의 창조주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생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MK, 302).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부패하고 비겁한 부르주아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큰 파도와 같은 정복의 개선행렬 가운데 숙명의 수레바퀴를 최후의 순간에 멈추려고 하는 새로운 힘”이다(MK, 15).

이렇듯 국가사회주의의 정치담론에 있어 ‘국가’, ‘인종’, ‘민족의 존립’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한 언어의 정치화는 히틀러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정치권력의 유지, 확대재생산의 배경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족’ 혹은 ‘민족의’(völkisch)는 ‘피와 대지’에 기반한 인종 공동체와 직결되는 것으로 태양의 민족인 아리안 혈통의 순수한 보존이라는 언어적 정치행위는 ‘생활공간’의 창출이라는 구실 하에 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결정적 계기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언어의 정치화는 히틀러 시대의 정치적 상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하지만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문법은 어떤 감정, 즉 “광분으로 격렬하게 자극된 열정”이며, 국가사회주의의 정치적 세계상은 현실

12) MK, 151.

히틀러의 ‘존재나, 죽음이나’(Alles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201

정치에 대한 해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세계관념에서 발생”되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국가사회주의 언어’, ‘나치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파토스적 언어 내지는 “사이비적 웅장한 문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치지배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담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언어는 또한 상당히 신비주의적이다. 이에 대한 문장을 예로 들어 보자.

한 인종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 즉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탱하는 원동력인 이 가치는 아직 살아 있는 의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혼은 내면에서 본 인종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종은 영혼의 외부세계인 것이다(Reich, 1997:134 재인용).

그리하여 베르닝(Berning)(1962)은 나치언어를 ‘위장파 은폐의 언어’로 규정하면서 이 언어의 특징을 “종교적인 어법은 국가사회주의가 지니고 있는 허무주의와 전체주의적 권력추구를 “동포들”에게 속일 의도를 지닌 것”이며, “경제공동체나 혹은 민족공동체 등과 같은 조어는 허구적인 것이며, 이는 개인의 권리의 상실, 행동의 자유 및 사고의 자유의 상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어법은 국가사회주의의 권력욕에 혁명적인 행동충동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이 체제의 권력의 장악, 유지, 확대는 이를 위해 극화한 연출기법, 언어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아우어바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사회주의는 전쟁 후의 노이로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해석할 경우,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히틀러와 그가 이끄는 나치지배체제가 즐겨 사용했던 언어적 기법 및 연출기법은 무엇이었던가? 대표적인 연출기법을 예로 들어보자. 햇불이 타오르고 북소

리가 올려 퍼지는 가운데, 때로는 촛불을 담은 수많은 쟁반에 의해 밝혀지는 조명 속에서 이루어진 히틀러에 대한 대중들의 충성 맹세¹³⁾, 즉 “나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운동의 파수꾼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가 내게 내려준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햇불’의 언어는 감정을 고조시키며, ‘촛불’의 언어는 감정을 순화시키며,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지시한다. 결국 모든 대중은 오로지 하나의 결론만을 받아들인다. “독일이 히틀러인 것처럼, 히틀러는 독일이다”라고. 부연하면, 나치지배체계의 존재론적 기반 및 정당성은 “피와 대지”(Blut und Boden)의 토대 위에서 성립된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라는 정치적 수사와 연결된다. 이 정치적 수사의 토대에는 “맹목적 믿음이 산을 무너뜨린다”(Blinder Glaube stürzt Berge um)는 히틀러의 언표가 자리잡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히틀러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대중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연설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 대중들의 환상을 자아내게 하는 신비로운 단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대중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글보다는 언변이며, 이 세상에 있어서 위대한 운동은 모두 위대한 문필가가 아니라 위대한 연설가에게서 그 진전의 혜택을 입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MK, 17-8). 이러한 맥락에서 그에 있어 언어는 소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언어는 대중을 설득 및 조종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며, 나아가 자신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무기였다고 볼 수 있다.

13) 히틀러의 연설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대중에 대한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히틀러에 따르면, “아침에는 -낮에도 역시- 인간의 의지력은 자기와 다른 의도와 의견을 강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상당한 에너지와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밤에는 그 의지력이 한층 더 강한 의지의 지배력에 더욱 쉽게 굴복한다”는 것이다. MK, 158.

2. ‘우리’(wir)’와 ‘민족’(Volk)

히틀러의 언어, 국가사회주의의 언어는 간단히 표현하면, 일체성과 완결성을 지향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와 ‘민족’¹⁴⁾이라는 문법 역시 궁극적으로 일체성을 지향하는 단어로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히틀러가 권력이양을 한 이후로 명사인 ‘민족’과 형용사인 ‘민족의’ 혹은 ‘민족적’이라는 단어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이자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 단어이자 이 운동의 정치적 세계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의식’, ‘민족문화’, ‘민족복지’, ‘민족노동자’, ‘민족신체’, ‘민족정신’, ‘민족적 발전’, ‘민족적 생활질서’, ‘민족적 사고’ 등의 언어적 표현을 들 수 있다. 계속적으로 논의될 것이지만 ‘민족’은 ‘피와 대지’의 사상을 내포하는 총체적 개념이며, 이 개념을 위해 등장하는 화법이 ‘우리’이다. “피와 대지의 불가분한 결속은 한 민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수행할 역사적 임무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부과된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문법은 어떠한 정치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치언어에 있어 ‘우리’는 단지 군집적인 의미만을 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속깊이 동일한 것을 열망하면서도 이 열망을 세밀하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라는 용법은 달리 구사됨으로써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경계선과 역할인식을 분명하게끔 하도록 “언어를 통한 폭력”을 대중에게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라는 용법은 국가사회주의 언어에서 유기적 구조를 가지면서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즉 “내포적 우리”,

14)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김종영,2003) 참조.

“배타적 우리” 그리고 “지도적 우리”가 바로 그것이다(김종영, 2003:138-150). ‘내포적’ 우리는 화자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 단어 속에는 청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중과의 연대감 내지는 일체감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설득적인 기능을 한다. 나치의 언어는 ‘내포적’ 우리라는 용법을 사용함으로써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그리고 대중이라는 삼위일체를 통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혹은 운명공동체의 존재를 절대적 진리체로 상정한다. ‘내포적’ 우리는 주변세계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극적인 묘사와 동시에 이에 대한 ‘적’의 등장을 예견하면서 결국에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제하는 화법이다. 즉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위환경은 이에 대해 몰이해나 아니면 어리석은 소견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Mass, 1984, 김종영, 2003:140 재인용).

우리 민족을 사로잡았던 교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완전한 봄날을 증오와 동포간의 불화, 반목과 빈민의 날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 날은 점점 더 우리 민족의 이탈과 분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고뇌가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난 후에 마침내 자각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인 심사숙고할 수 있고,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말입니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은 옛날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농민들은 옛날처럼 쟁기를 앞세워 견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시끄러운 모루 앞에 서 있습니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백만의 국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삶이란 단지 고통과 궁핍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내세와 바꾸었습니다. 내세에서의 보다 나은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저 절망감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

히틀러의 ‘존재나, 죽음이나’(Alles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205

니까?¹⁵⁾

히틀러의 연설문에 언제나 일관된 논조로 등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은 기존의 정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사적 난국 속에서 자신은 ‘민족의 구세주’임을 대중들에게 확신시키며, 나아가 독일민족은 이 ‘민족의 구세주’에게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도자’에 의한 지시만이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통한 ‘독일민족만세’가 환호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내포적’ 우리라는 문법 속에는 주인에 대한 하인의 절대적 복종이 암시되어 있다.

‘배타적’ 우리는 대중을 지도하는 엘리트집단과 대중을 경계짓는 개념으로 이 용법에 있어서는 청중이 배제되어 있으며, 동시에 핵심권력지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배타적’ 우리는 무기력한 대중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한다는 점을 청중에게 부각시킨다. 하지만 ‘배타적’ 우리가 행하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민족을 위한 헌신적 행위이므로 결국 대중의 충성과 복종을 강제하며, 지배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김종영, 2003:143-147).

우리는 독일민족의 국가를 꿈꿉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 민족에게 매일 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민족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¹⁶⁾

또한 ‘배타적’ 우리는 곧 민족의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언표이다. 즉 “우리는 이 민족이 오로지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

15) Max Domarus, Hitler. reden und Proklamationen 1932-1945. Kommentiert von einem deutschen Zeitgenossen, Bd. 1-4, Leonberg. 위의 인용문은 김종영(2003: 205-216. 재인용),

16) 히틀러, 1933년 5월 1일 연설문. 김종영(2003: 209, 재인용)

나 정당 등의 집단으로서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민족에게 심어 주었으며”, “... 우리가...어떠한 지시를 내린다면, 이것은 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독일민족을 위해 독일민족을 참담한 실망과 궁핍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배타적’ 우리라는 문법을 사용하면서 대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런 다음 ‘내포적’ 우리를 사용하여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하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법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연설문 속에서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배타적’ 우리와 ‘내포적’ 우리의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배타적’ 우리의 권위를 더 고양시키는 의도로 말이다. 특히 ‘배타적’ 우리라는 문법은 나체체제의 핵심체와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충성 나아가 민족공동체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배타적’ 우리와 ‘내포적’ 우리의 토대 위에서 이제 ‘지도적’ 우리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 ‘지도적’ 우리는 ‘배타적’ 우리와 ‘내포적’ 우리가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도적’ 우리라는 문법은 ‘배타적’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수단이며, 국가사회주의체제가 계획하고 행하는 사업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김종영, 2003:148-149). 또한 히틀러의 연설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신이 이를 축복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길을 의연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redlich) 계속해서 나아가간다면, 우리가 착실하고(brav) 충실하게(treu) 우리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내가 확신하기로는 또한 미래에도 신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Maas, 1984:66 재인용). 이 인용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는 ‘지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종교적 어법을 사용하여 ‘지도적’ 우리는 곧 신의 섭리를 받들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히틀러는 1933년 5월 1일 행한 연설에서 신의 축복을 빌어 나치체제의 과업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근면함, 우리의 끈기,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통해 국가의 재도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형제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시간이 오면 함께 진력하려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 간청하려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변했습니다. 독일민족은 더 이상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소심하고 확신이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주님, 독일민족은 다시금 의지와 인내가 강하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축복하시고, 아울러 우리 독일민족과 조국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김종영, 2003: 215-216 재인용).

현실정치에서 신의 섭리라는 문법은 지도자의 명령으로 구현되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거부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신의 지시를 대항하는 지도자는 민족의 의지의 총화인 ‘민족공동체’를 구현한다. ‘우리’와 ‘민족’의 담론 속에서 “개인적인 자유의 권리는 인종 보존의 의무 앞에서”(MK, 365) 요컨대, 민족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각하된다. 사정이 이러하듯이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민족혁명”을 통해 다양한 사회세력 및 정치세력들의 다원주의적 합의에 기반을 두었던 기존의 체제를 해체하고 수립한 체제는 사실상 모든 피지배계층들을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시키고 이데올로기 기관들을 나치체제의 지배 및 통제체제에 직접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들의 자율성을 강탈하였던 체제였다. 즉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반자본주의를 외쳐대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체제는 자본주의 구조를 유지한 채 헤게모니 체제를 재편성한 체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Peukert, 1982:58). 이러한 헤게모니의 재편성 과정에서 ‘우리’라는 문법은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다.

3. 국제주의와 민족공동체

요하임 페스트가 옳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히틀러 자신이 직접 시인하고 있듯이 사실상 경제구조와는 전혀 상관 없다. 이 단어는 노동자 대중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결집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행해진 정치적 언어유희일 뿐이다. 동시에 이 언어유희는 전체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의미하는 ‘민족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보충개념으로 개인에 대한 전체의 책임, 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을 지시한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단지 이 둘을 합친 용법에 불과하다. 요컨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은 대중융합적인 분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동시에 역동적인 사회적 힘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당’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대변하기 위해 ‘민족의’ 라는 단어를 채택하였다(Fest, 1998:474-475). 슈트라스와의 논쟁에서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한 경우에 생산관계들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히틀러의 답변은 더 이상의 정치적 수사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경제를 파괴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미쳤다고 (wahnsinnig)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민족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국가는 간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재산몰수나 공동결정권(Mitbestimmung)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Fest, 1998:474 재인용).

이처럼 히틀러의 ‘사회주의’는 그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그러한 사회는 결코 아니었다.¹⁷⁾

히틀러의 ‘존재나, 죽음이나’(Alles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209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국 및 국가사회주의지배체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히틀러의 언어의 정치화 내지 정치담론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의 노동자가 민족공동체를 향해 접근해 가는 경우에 가장 어려운 장애는 그들의 신분상의 이익 옹호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 및 조국에 적대하는 국제주의적 지도와 태도에 놓여 있다(MK, 485).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운동의 관점에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삶과 죽음의 투쟁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국제주의 즉 맑스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사실상 그의 사유지평에서 볼 때, 유태인주의, 맑스주의, 볼셰비즘 및 국제주의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 사용에 불과할 뿐이다. 그는 국가사회주의운동이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맑스주의의 핵심체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대중을 자기편으로 안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총괄하는 민족공동체의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공공의 복지나 국민경제의 존속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범하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 기업가가 비인간적이고 착취

17) 히틀러는 슈트라스와의 논쟁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레벤트로프 백작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단순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나의 운전기사와는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단지 극단적인(krass)인 맑스주의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빵과 놀이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을 획득하리라고는 결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 연민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이 더 나은 종족이라는 이유에서 지배할 권리를 확신하고 광범위한 대중에 대한 이 지배를 가차없이 내세우고 확보하는 새로운 주인계층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체계는 실제적인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탁상공론(Schreibtischarbeit)입니다”(Fest, 1998:473).

적인 경영관리를 하고 국민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그 맘의 결정에서 수 백만의 돈을 폭리로 취한다면 그들 역시 민족공동체를 심하게 파괴하는 셈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자기가 국민적이라고 행동할 권리도, 민족공동체에 대해 발언할 권리도 없다(MK, 486).

히틀러에게 있어 노동자 대중은 '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동지'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지니고 있다. 이 대중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면, 국가사회주의지배체제의 담론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하여 민족공동체가 해야 할 당위적인 과업으로서 노동자 대중을 국제주의적 환상에서 각성시키고, 사회적 곤궁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문화적 비참함에서 구해주어야 하는 정치적 수사학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 대중들이 자신을 국민으로 느끼고 국민적 이기를 바라는 단결된 구성요소임을 인식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구현, 즉 국가사회주의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MK, 486). 요컨대, 히틀러는 사회구성원을 '계급'이라는 언표로써 보다는 '민족'이라는 언표로써 결집시키려 했다.

4. 지도자원칙과 계몽 절대군주

비록 국가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 대중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다수의 득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운동은 그 내용 및 내부조직에 있어 의회주의를 철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은 민주주의의 표결원리인 다수결 원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히틀러가 보기에 다수결 원리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MK, 490-491). 대신에 그는 게르만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다름 아닌 최고의 책임 및 권한과 결합된 지도자(Führer) 권위원칙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히틀러 혹은 나치체제는 “철인”에 의한 정치지배형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지도자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는 용법은 결코 큰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지도자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줄 때, 비로소 지도자는 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지도자'라는 단어가 지니는 내연과 외연은 '위기로부터의 독일의 구원자'(Retter Deutschlands aus der Not)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도자는 “기계적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타고나는 것”(MK, 502)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의 문제였다. 요컨대, 나치언어에 있어 '지도자'는 '신의 섭리에 의해 부여된 전체 독일 운명을 책임지는 주인'을 지시하는 문법이다. 히틀러가 대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는 있지만 잘 조직된 소수가 존재할 때, 비로소 다수 또한 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히틀러의 지도자원칙 문법은 소수 정예에 의한 엘리트지배체제라는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창출해 내고 있다. 르봉(Le Bon)의 생각을 이어받으면서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대중 내지는 대중의 심리상태를 다음과 같이 예단하고 있다.

대중의 심리는 어중간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선 감수성이 둔하다. 마치 여성과 같다. 그 여성들의 정신적 감각은 추상적인 이성의 근거 따위에 의해 정해진다고보다는 오히려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힘에 대한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적 동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훨씬 더 즐겨한다. 대중 역시 복종하는 자보다 지배하는 자를 훨씬 더 좋아하고 해방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적을 용서하지 않는 교설로 인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낀다... 그들은 파렴치한 정신적 테러에도 무감각하며, 인간적인 자유가

몹시 확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MK, 79).

히틀러의 언술구조에서 볼 때, 현실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 대중 동원이 필요하게 되고 대중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내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도 및 지배가 필요하다. 요컨대, “작은 집단의 광신자들이 대중을 이끌어 간다... 강력한 소수를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다수를 위한 투쟁을 하였다.” 하지만 대중에 대한 호소는 논증에 의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성에 의한 호소, 즉 파토스에 의한 호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은 단순한 사고와 감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대중은 “자신들이 정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중은 극도의 감정을 통해서만 자극받기 때문에 대중의 이성의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내가 이성적인 생각으로써 대중에게 다가 가면,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속에서 합당한 감정을 자극한다면, 그들은 내가 던진 단순한 구호를 따릅니다. 대중 집회에서 사고는 차단”된다는 원칙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언설을 하였다.

사실상 지도자원칙 및 지도자승배는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칼 맑스를 먹어 치운다”(Adolf Hitler frisst Karl Marx)라고 외쳐 대었던 제3 제국의 선전장관인 괴벨스(Goebbels)가 연출해 낸 작품이었다.¹⁸⁾ 히틀러에 대한 괴벨스의 평가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그는 천재이다. 분명히 신이 그 운명을 만들어 내었다. 그의 앞에 서

18) 1931년 괴벨스가 ‘지도자’라는 칭호와 ‘히틀러 만세’(Heil Hitle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933년 3월 선거 후에 히틀러는 괴벨스를 ‘선전 및 민족계몽을 위한 제국장관’(Reichsminister für Propaganda und Volksaufklärung)으로 임명하였다.

면 온몸이 떨린다. 그는 아이처럼 사랑스럽고 선량하다. 고양이처럼 영리하고 기민하며 사자처럼 육중하고 포효한다. 사나이이자 남자이다 (Knopp, 1996:36-37 재인용).

천재는 신에게서 독일을 구할 운명을 부여받았다. 이 운명을 부여 받은 인간은 마키아벨리가 내세우고 있는 지배자의 자질, 즉 ‘사랑’, ‘선량함’, ‘지혜로움’, ‘용기’, 그 모두를 갖추고 있다. 히틀러는 독일이고, 독일이 곧 히틀러가 된다. 독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 혹은 민족공동체로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답론은 곧 계몽군주인 지도자에 대한 답론, 히틀러에 대한 승배로 이어진다. 민족의 구세주로서 말이다. “하늘의 섭리에 의해 전체 독일의 운명에 관한 주인”인 지도자의 명령은 신의 섭리로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단지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곧 ‘피와 대지’(Blut und Boden)에 토대를 둔 민족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전제이다. 즉 “민족적 세계관은 인류의 의미를 인종적 근본 요소에서 인식”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피와 대지의 불가분(unlösbar)의 결속은 한 민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unerlässlich) 전제조건”이다. 히틀러의 언어 사용에 있어 ‘피’는 ‘우리 모두’, ‘인종’으로, ‘대지’는 “민족문화의 원천”으로서 이 두 단어는 ‘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 나아가 민족 혹은 민족공동체와 함께 ‘생활공간’(Lebensraum)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틀러의 언표에서 인종주의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히틀러의 정책으로 간주된다. 즉 ‘생활공간’은 민족의 자립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전략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히틀러의 진술에 따르면, 오로지 영웅만이 지도자에 적합하며, 어떤 특정한 이념은 다수 대중의 머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인의 머리에서 비롯된다(MK, 493). 게다가 인문문화의 진

보와 문화는 다수결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독창력과 행동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MK, 492). 이러한 점에서 그는 “모든 인간적인 것의 가치는 인물의 가치에 있다는 점, 또한 모든 이념과 성과는 인간의 창조력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위인에 대한 숭배는 단지 이 인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대감으로 칭송하는 자들을 결합시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MK, 501).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인류를 초월한 사랑’,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진리 그 자체’ 등과 같은 은유로 표현되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진다. 적어도 나치체제 밑에서 히틀러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지도자’라는 언어는 한 인간에 대한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성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추상적인 대명사로의 은유적 표현으로 옮겨 간다.

인간의 의지가 좌절하고 정신이 절망할 경우, 과거의 황혼 속에서 곤궁과 불안, 불명예와 비참, 정신적 예측과 육체적 강요 등을 정복한 위인이 그들을 내려다 보며, 절망하고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영원의 손을 뻗치는 것이다. 그 손을 잡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민족에게 재앙이 있으라!(MK, 502)

그런 까닭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의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며, 그래서 민족공동체 즉 국가란 단일 인종과 영토의 기반 위에서만 오로지 실현가능하다는 국가사회주의 정치담론은 곧 “인류의 가장 심각한 쇠퇴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 제도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MK, 492). 간단히 말해 국가사회주의 정치담론은 ‘철인왕’에 의한 정치를 지시하며, 지도자가 곧 이념이며, 이념이 곧 지도자인 것이다. 히틀러는 이념을 지도자의 상위개념으로 놓고자 하는 오토 슈트라스(Otto Strasser)¹⁹⁾에

히틀러의 ‘존재나, 죽음이나’(Alles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215

대해 “위로는 책임을, 아래로는 권위를”이라는 구호아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당 동지들에게 이념을 결정할 권리를 주고, 심지어 지도자가 이념에 충실한지 않은지에 대한 권리까지도 주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 당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장 나쁜 민주주의이다. 우리 당에서는 지도자와 이념은 동일한 것이고, 당의 동지들은 당의 최종 목적을 유일하게 알고 이념을 스스로 구현하려 하는 지도자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Fest, 1998:472-473 재인용).

IV. 결 론

히틀러는 분명히 세계사의 정치지형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그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결론론적 입장에 치우쳐 그를 평가하려 하는 점은 그렇게 온당한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는 베버적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인성이나 특별한 자기만의 사상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 인간들이 단지 이성 혹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특정한 인물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존재라면, 분명히 히틀러의 정치이데올로기는 결코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였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감성의 신비로운 힘에 무방비상태인 군중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대중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는 연사들은 대중의 감성에 호소해야 하며, 결코 이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단

19) 이들의 논쟁은 1930년 5월 21일-22일 그 당시에 히틀러의 본부(Quartier)였던 링크가(Linkstrasse)의 상수시(Sanssouci)에서 벌어졌다. Fest, Hitler, 472쪽.

216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지 극도의 감정을 통해서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열광시키려는 연사는 강렬한 표현들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중은 단지로고스(Logos)에 따라 강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위기와 이성의 인지도의 존재여부에 따라 파토스(Pathos)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폐쇄적 언어” 사용과 이의 정치화를 통해 대중의 감정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언어의 목표는 언어가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성을 효율화하는 것에 있었으며, 나아가 그의 언어는 타나토스(thanatos)를 향해 나아가는 행진곡이었다. 언어의 폭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차단함으로써 오로지 특정한 사고와 행위양식에 순응하게 하였다. 히틀러와 나치체제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언어이자 접근 불가능한 배타적 언어는 ‘피와 대지’에 기반한 ‘민족공동체’였다.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국가와 권력은 오로지 순수성을 의미하는 단일 인종과 영토라고 하는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피와 대지의 불가분의 결속”이야말로 “민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다. ‘대지’는 “민족문화의 원천”이자 “후손들의 배양소이자 뿌리가 되는 토양”이며, ‘피와 대지’에 근거하여 “민족공동체”가 확립될 때, 비로소 민족은 “평화와 평온”을 누릴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피와 대지’라는 정치신념은 독일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식민지 정치선전에서 국가사회주의의 피와 대지에 대한 사상이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히틀러는 언어에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의 상대성을 용인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는 민족공동체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이 합리성 혹은 이성에 입각해서만 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언어가 가지는 정치적 위력은 그렇게 대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까닭에 언어의 정치화 혹은 정치적 언어가 인간의 행위와 사고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는 집권기간 동안 위기의식과 공포감에 기반한 파괴와 폭력의 언표를 통한 언어의 정치화를 통해 사회구성원과 체제의 정체성, 정당성 및 리더십을 이어나갔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 김종영, 2003, 『과시즘 언어』. 서울: 한국문화사.
- Arendt, Hannah, 1968,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Yovanowich.
- Auerbach, Hellmuth, "Hitlers politische Lehrjahre und die Münchner Gesellschaft 1919-1923". *VfZ*, 25(1977), 1-45쪽.
- _____. 1986. "Führungspersonen und Weltanschauungen des Nationalsozialismus". Martin Broszat und Horst Möller(편집), *Das Dritte Reich. Herrschaftsstruktur und Geschichte*. München. 1986, 127-151.
- Berning, Cornelia. 1961.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7. 171-182.
- _____. 1962.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8. 108-118; 160-182.
- _____. 1963.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9. 92-112.
- Baumann, Zygmunt,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Oxford.
- Broszat, Martin, 1969, *Der Staat Hitlers. Grundlegung und Entwicklung seiner inneren Verfassung*. München: Beck.
- Broszat, Martin/Möller, Horst, 1986, *Das Dritte Reich*. München: Beck.
- Bullock, Alan, 1991, *Hitler und Stalin*. Berlin: Siedler Verlag.
- Collins, Jeff, 2000, *Heidegger and the Nazis*. London: Icon Books. 이경현 옮김. 2004. 『하이데거와 나치』. 서울: 이체이북스.
- David, Claude. *Hitler Et Nazisme. Collection Que Sais-Je? No. 624*. 정성진 역. 1986, 『히틀러와 나치즘』. 서울: 탐구당.
- Deuerlein, Ernst, "Hitlers Eintritt in die Politik und die Reichswehr."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7, 1959, 177-227.
- Domarus, Max(편집), 1973, *Hitler. Reden und Proklamationen. 1933-1945*. 2 Bände in 4 Teilbänden, Wiesbaden.
- Fest, Joachim, 1998, *Hitler. Eine Biographie*. Berlin: Ullstein. 안인희 옮김, 2004, 『히틀러 평전』. 파주: 푸른 숲.
- Haffner, Sebastian, 1978, *Anmerkungen zu Hitler*. München: Kindler Verlag.
- Herbst, L. "Der Fall Hitler -Inszenierungskunst und Charismapolitik." Nippel, W.(hrsg.) 2000, *Virtuosen der Macht: Herrschaft und Charisma von Perikles bis Mao*. München: Beck. 171-191.
- Hildebrand, Klaus, "Der Fall Hitler." *Neue politische Literatur*, 14(1969), 375-386쪽.
- _____. "Nationalismus oder Hitlerismus?" in: Michael Bosch(편집), *Persönlichkeit und Struktur in der Geschichte*, Düsseldorf, 1977. 55-71쪽.
- Hitler, Adolf, *Mein Kampf*. 서석연 옮김, 1998, 『나의 투쟁』. 상, 하. 서울: 범우사.
- _____, 1927, *Der Weg zum Wiederaufstieg*. München.
- _____, 1980, *Samtliche Aufzeichnungen 1905-1924*. Eberhard Jäckel/Axel Kuhn(편집). Stuttgart.
- _____, 1980, *Monologe im Führerhauptquartier 1941-1944. Die Aufzeichnungen Heinrich Heims*. Werner Jochmann(편집), Hamburg.
- _____. *Reden Schriften Anordnungen. Februar 1925 bis Januar*

1933. Institut für Zeitgeschichte(편집). 5 Bände in 12 Teilbänden. München/London/New York/Paris. 1992-1998.

Kershaw, Ian, 1998, *Hitler(1889-1936)*. Stuttgart: Deutschen Verlags-Anstalt.

Knopp, Guido, 1996. *Hitlers Helfer*. München: Bertelsmann. 신철 식 옮김, 2003, 『히틀러의 뜻대로』. 서울: 울력.

Lebert, Norbert/Lebert, Stephan, 2000, *Denn du trägst deinen Namen*. München: Karl Blessing. 이영희 옮김. 2001, 『나치의 자식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기에 짊어진 유산과 운명』. 서울: 사람과 사람.

Mass, Utz, 1984, "Als der Geist der Gemeinschaft eine Sprache fand".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Versuch einer historischen Argumentationsanalyse. Opladen.

Maser, Werner, 1973, *Adolf Hitler. legende, Mythos, Wirklichkeit*, 3판, München.

_____. 1980. *Adolf Hitler. Das Ende der Führer-Legende*. Düsseldorf/Wien.

Peukert, Detlev, 1982, *Volksgenossen und Gemeinschaftsfremde. Anpassung, Ausmerze und Aufbegehren unter dem Nationalismus*. 김학이 옮김, 2003, 『나치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서울: 개미고원.

Rauschnig, H., 1940, *Gespräche mit Hitler*. Zürich/Wien/New York.

Reich, Wilhelm, 1997,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Infant Trust Fund. 황선길 옮김, 2006, 『파시즘의 대중심리』. 서울: 그린비.

Reuth, Ralf Georg, 1990, *Goebbels*. Munich: Piper. 김태희 옮김, 2006,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Thamer, Hans-Ulrich, 1992, *Die Deutschen und ihre Nation: Verführung und Gewalt*. Berlin: Siedler Verlag.

Tuner, Henry Ashby, "Hitlers Einstellung zu Wirtschaft und Gesellschaft vor 1933."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 1976, 89-117쪽.

Wippermann, Wolfgang(편집), 1986, *Kontroversen um Hitler*, Frankfurt am Main.

Wistrich, Robert S., 2004, *Hitler and The Holocaust*. 송충기 옮김, 2004,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서울: 을유문화사.

Zentner, Christian, 2006, 18 Aufl. *Mein Kampf. Eine kommentierte Auswahl*. Berlin:Ullstein Buchverlag.

'Alles oder Nichts' Grammar of Adolf Hitler and its Political Rule-System: "The Negation of Reason".

Joe, Hyeon-soo
(Kookmin University)

Abstract

As is well known, language functions as more than merely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by also constituting the web of human thinking. Language must therefore be understood in terms of social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unravel how Hitler got, maintained and then reinforced power through the use of language. He fully utilized political language as a means of mass agitation and mass manipulation for cultivating worship in himself,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his national socialist party in Germany and thus launching his overall reforms for Germany. political discourses have been proved to have rendered great impact on the political actions of the German people during his reign. Nobody would deny that Hitler created image of 'enemies and comrades' through the symbolic use of political language and thus

히틀러의 '존재나, 죽음이나'(Allesoder Nichts)문법과 그 정치지배형태 223

indoctrinated German people with political ideas conducive to consolidating the legitimacy for his system of rule. His political language was designed to expose the negative standpoint of human reason for the final aim of constructing 'Volksgemeinschaft' through the attainment of life-space.

Keywords: Politics, Language, Rule, Propaganda, Mass-instigation, Political Power, National-socialism, the principle of leader, Nation, Volksgemeinschaft, Life space.

22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